

凶年(을말)、死亡(을전염병)、猛獸(역시청황색일)合五個의 災殃이

라고하지 아니하고 弓即門馬는 빼어 놓고 鏃、銳、矢、
사망(여수합비재앙)이라고 分明히 記錄하심을 不拘하
死亡、猛獸合災殃이라고 分明히 記錄하심을 不拘하

고 사람들이 自己들의 私意를 좇자서 白馬外지 合
야 五個의 灾殃으로 解釋하나니 참으로 异常스러운
일이옵시다。

우리 인류 類가 夷獸類의 玉皮를 합부로 剝脫하야
인해물역 악심성 풍토로 주수 흑토수 은 桥子、或은 周衣、或은 吐手、或은 頸卷를 만드려
한 寒하여 又或是 그 고기(肉)를 먹나니 이것이 엊지 残防病或은 防病
다시 幾千年의 抑鬱心을 가지고 우리 人類들을 마암대
로 한番 摶食하야 報讐고자 찬 뜰 떨고 잇슬터이지만

온 하나님께서 아직도 許諾지 아니하심으로 더들이 그
현상 人類侵食을 許諾하시는 날 即此 青黃色馬時代가 되면
전쟁、 흉년、 전염병의 滅殺되는 그 人數의 比例로 더

음생의 계도 滅殺되고 악 말것이 올시다。 欽日外지 사

들이 戰、 凶、 痘、 火災에 對하여 서
자 모르나 此獸患에 對하여 서는 有識階級의 人은

하나 以上에 已陳함과 것치 此獸患도 以上의 三災殃
하나 以上에 已陳함과 것치 此獸患도 以上의 三災殃
파同一한 四大災殃中의 一이 올시다。 오! 사람들이

의지어다。 慷情하도다 世人들이 이 버 한獸示의 聖旨을
모르지아니 無知不信하고 다만 이 世上의 知識으로만 現世觀의

니 人生觀이니하고 여들지 않은 來世觀은勿論하고
한 無趣味 할것이외다。 그럼으로 누구먼지 此獸示의

식견 現世觀의 일까지 豁然貫通게 되여 現世觀에도

니라 現世의 일까지 現在와 未來를 見通여 봄때에 來世觀이
모르는趣味를 가지게 됩니다。 속에 此獸示에 對한 나의

취미 一端을 纔言하고 저하나이다。

나는 本來이 世上事理에 對하야 甚히 暗昧합니다。

本래 世上事理에 對하야 甚히 暗昧합니다。

무식계급의 人은 物論
多 少의 觀念이 업습니다。

무식계급의 人은 物論
多 少의 觀念이 업습니다。

무식계급의 人은 物論
多 少의 觀念이 업습니다。

려나 하나님께서 此世上 모든事理를 預言과 默示로 써 밝히 가라 처주신故도 그 것을 그대로 썩 및고 그 말씀을 외지 依하야 現世의 事理를 내다 볼 때에는 이 世上의 知識이 섬부 賦富한者들이 아지 못하고 듯지도 못 한 일 (이사야四十八〇八) 을 나 혼자 알게 되고 伍가 다려 보면 果然 그일이 그 默示의 말 삼과 같지 成就되 는 것을 種々 經驗한 일이 있습니 그 런 中에 特別히 此可 恐惶患도 亦是 이 默示의 말 삼 신부지 信不知 (교인 중에도 이 륙지를 보고 도깨지 못하는 자 업지 아니하나니 그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계는 그 둑지를 통하신 바 턱입니다 새 간자 여년 餘年 브터 此隱患에 對하야 巡回中 全鮮到處에 大宣傳 대경고 착착성취 大警告를 하여 단념더니 그 후 각 신문 报道로 그 일이 着々 成就됨을 암암 中심으로 獨喜默謝 하는 바이 올시 다. 그럼으로 나는 每樣新聞을 보아도 段장사는 쌀을 보 고 布木장사는 布木금보 듯서 이런 默示와 預言의 말 삼이 現世로 應하여 가는 中에 있는 무 삼事理의 有無만

耽讀하는 中에 世人들이 아지 못하는 知識과 趣味를 種種 주의 무 률 암 해 입대여 나 혼자 맛 보고 感謝하는 일이 있습 니다. 果然 우리 信者들은 어리석은 者갓 호나 智慧로 온 자 하나님의 말 삼 요、無味한 者갓 호나 有味한 者이 올시며 者을 빛음으로 独樂을 알니오 다만 맛음의 親舊분이로 고나、아니에요.

一一、地震 太廿四。七。六〇。十一。

이도 또한 此亦 하나님의 여러 가지 徵驗 中의 一이 외다. 그러나 現今 地震學者들의 말은 地震이라는 것은 即 地球 中에 地震脉이 潛在하였다가 急激한 強性의 波動이 地震에 니라는 결과라 하며 더 地震脉이 地中에 潛在한 以上에는 早晚間 언제던지 한번 폭발 地震이 每樣 하나님께서 地上의 猛人을 向

연세 圣經에 보면 地震이 每樣 하나님께서 地上의 猛人을 向

발노 하야 發怒하실 때마다 뒷걸정 (마태廿十。三。十八〇。十八)

一
是
噴
火